한진중공업노조 지회장의 죽음

김진균
서울대 명예교수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지회장인 김주익씨가 혼자서 크레인 철탑에서 농성하다가 죽었다. 그가 남긴 유서는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큰 슬픔을 주고 있다. 그가 크레인 철탑에 올라간 지 90여 일, 그리고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50여 일이 지나서 유서를 썼다. 그 유서에는 이런 글이 있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1년 당기 순이익의 1.5배, 2.5배를 주주들에게 배상하는 경영진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경영진들.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 원 정도의 배상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천 5백억 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이겠는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만 21년, 그런데 한 달 기본급 105만 원. 그 중 세금들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팔십 몇 만원. 근속년수가 많아질수록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할텐데 햇수가 더할수록 더욱 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 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니 노동자는 다 굶어죽어야 한단 말인가."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기 위해 목숨 걸어야 하는 나라

이른바 '조·동·중'이라는 중앙 신문들은 지난 번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가 연봉 6천만이라고 떠벌리며 한국의 경제사정을 노동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불안정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 노동 소득이 높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살기 어렵고 노동 강도가 높기는 매한가지이다.

1970년, 전태일 분신

전태일이 분신하던 해 1970년, 노동자들이 빈곤한 농촌에서 도시로 나와 살기 위해 발버둥칠 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잘 몰랐다. 근로기준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노동청 사람 일부와 대기업의 노무관리 담당자들이었다. 이들은 노동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노동자를 교묘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엄연히 노동법에 적시되어 있는데도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빨갱이'로 몰았다. 그때는 빨갱이 소리만 들어도 사지가 떨리는 세상이었다. 전태일이 오죽하면 근로기준법이라도 가르쳐주는 대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겠는가? 전태일의 죽음에 각성한 대학생들이 청계천을 찾아갔고, 노동문제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노동조합에 관련한 활동을 했다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산업별로 단체교섭 하는 방식도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사용자는 노동자를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몰염치하게 엄청난 순이익을 소수 주주에게 배당하면서 생산의 차질이 노동자에게 있다고 옥죄고 있다. 조선조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의 덕목으로서 '염치'를 내세웠다. 자본가는, 기업가는, 사용자는 염치도 없는 존재들인가? 전태일은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하고 분신하였지만, 우리에게 '염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네, 염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네!'